

# 육상풍력 활성화 시·군 협의체 추진

### 도, 지역주민과 상생 '이익공유 활성화 방안' 모색

전북특별자치도는 3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육상풍력 활성화를 위한 시·군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도내 14개 시·군의 에너지(풍력)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육상풍력 발전의 효율적인 추진과 주민 이익공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 주요 내용은 주민 이익공유 육상풍력 추진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방안을 논의하는 것이다.

협의체는 각 시·군의 담당자들이 주민 이익공유 육상풍력 사업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향후 육상풍력 발전사업의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될 예정이다.

먼저, 이종훈 전북자치도 에너지 수산업과장 주재로 14개 시·군과 향후 육상풍력 협의체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시·군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통합된 정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정기적인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와 시·군이 함께 세미나를 개최하고, 타 시·도 발전시설을 견학하는 등 육상풍력 사업 이해도 증진 및 주민 수용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육상풍력 발전사업 입지 발굴 및 보급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운영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다. 지역적 특성을 바탕으로 입지 발굴 및 분석,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주민

수용성 제고 방안 마련 등 주민과 상생하는 육상풍력 확대를 도모 계획이며 향후 협의체,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재생에너지 전문가가 육상풍력 발전과 관련된 최신 기술 및 사례와 주민 이익공유 모델을 통해 풍력 발전 사업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수렴 및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협의체를 통해 단순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넘어 터빈·타워·하부구조물 기업유치 및 고용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훈 전북특별자치도 에너지 수산업과장은 "육상풍력 활성화를 위한 시·군 협의체는 신재생에너지 전환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첫걸

음"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성공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고창·부안 해역에 총 14조7,000억원이 투자되는 2,460MW 규모의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 단지를 조성 중으로 1.2GW 규모의 민간 발전사업자 선정을 위해 2024년 하반기 중에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3일 전북특별자치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제2기 전북자치경찰위원회' 공식 출범을 알리는 위원 임명식에 김관영 도지사가 이연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전북자치경찰위원회, 제2기 새롭게 출범

### 위원장에 이연주 변호사, 법조계·전직경찰·인권·여성 등 각분야 전문가 7명 구성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는 3일 제2기 전북자치경찰위원회 공식 출범을 알리는 위원 임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새롭게 구성된 제2기 위원 7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위원장은 이연주 변호사가 임명됐다. 이 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전북특별자치도 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전주지방법원 조정위원 등으로 활동했으며, 법률·행정·인권 분야의 폭넓은 경험을 살려 지역 특색에 맞는 주민 체감형 자치경찰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2기 위원은 전북도의회 추천 최낙준 변호사와 하태춘 전 완산경찰서장, 위원추천위원회 추천 신일섭 전 정읍경찰서장과 남준희 변호사, 국가경찰

위원회 추천 박성구 전 덕진경찰서장, 도 교육감 추천 나유인 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 이사장 등 7명으로 구성됐다. 또한, 위원은 전북참여자치 시민연대 지문위원, 지방노동위원회 공익심판위원,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의 경력을 가진 법조인과 전북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 전주기전대 경찰청호화과 특임교수 등의 경력이 있는 전직 경찰 등으로 구성돼, 치안행정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롭게 출범하는 제2기 전북자치경찰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신일섭 위원을 상임위원으로 선출했다.

상임위원인 위원장과 사무국장은 지방공무원 채용 절차를 거쳐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며, 위원 임기는 2024년 6월 2일부터 2027년 6월 1일까지 3년 간이다. 이연주 위원장은 "사회적

약자 보호와 도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노력하겠다"며, "그동안 위원회에서 추진해 온 중점 사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치안정책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자치경찰제의 핵심은 지방행정과 경찰행정의 융합으로 주민이 원하는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라며 "자치경찰제도가 더욱 발전하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위원들께서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자치경찰제는 경찰법에 따라 2021년 전면 시행됐으며, 경찰사무 중 지역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생활안전, 사회적약자 보호, 교통안전 등의 치안 업무를 담당하며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는 제도이다.

/이만호 기자

## 전북자치도, 제10기 관광모니터단 모집

### 14일까지 제10기 관광모니터 30여명 2년간 도내 관광지 불편사항 등 제보 수행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관광서비스 질을 향상에 앞장설 제10기 관광모니터 요원을 오는 14일까지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모집인원은 관광모니터 30여 명으로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도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제10기 관광모니터단은 오는 7월 1일 활동을 시작해 2026년 6월 30일까지 2년 동안 도내 관광지 이용 불편사항 및 개선사항에 대한 제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선발된 관광모니터 요원은 도내 지역 축제, 문화관광해설사 등 관광 분야를 모니터링하고, 관광정책 아이디어 제안과 관광지 온라인 홍보를 맡게 된다.

더불어 제보 건수에 따라 소정의 보상을 지급받고, 관광모니터로서의 활동이 적극적이고 제보 실적이 우수한 자는 도지사 포상을 받을 수 있다.

전북자치도는 특히 청년층 관광모니터 확충을 위해 도내 대학들에 협조를 요청해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도가 높은 대학(원)생 모

터 요원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도내 관광지를 둘러보면서 이용 불편사항 및 개선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외에도 SNS를 통해 14개 시·군의 주요 관광지에 대한 홍보 활동도 겸하면서 전북 관광을 널리 알리는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제10기 관광모니터단에 지원하려는 도민은 도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지원신청서를 내려받아 오는 14일까지 이메일(juninwa@korea.kr)로 신청할 수 있고, 세부내용은 도 관광산업과(☎280-2708)로 문의하면 된다.

최종 합격자 발표는 6월 30일이며, 도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 공지될 예정이다.

이남섭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도내 관광 서비스 향상을 위해 제10기 관광모니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라며, "도민들의 참여로 전북 관광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 도,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확대 지원

### 지난해보다 382명 늘어난 465명... 1인당 연간 35만원 이용권 지원금 전액 사용시 예산 내 재충진 지원도 가능

전북자치도가 장애인의 학습권 지원을 확대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 대상을 지난해보다 382명 늘어난 465명으로 확대해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에게 1인당 연간 35만원(최대 70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규모 내에서는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단, 올해 일반 평생교육 이용권 수혜자와 '장학재단법'에 따른 국가장학금 수혜자 및 지자체 자체사업비로 편성된 평생교육 이용권 수혜자

는 중복수혜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각 시·군별 접수기간을 확인 후 '보조금 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된 바우처는 '평생교육 바우처 누리집'에 등록된 기관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이용권 지원금을 전액 사용하거나 수강 후 결과 보고가 완료된 우수 이용자에게는 예산 내에서 재충진 지원(추가 35만원)도 가능하다.

양수미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전북자치도가 맞춤형 평생교육 기회 제공으로 장애인의 평생학습 역량개발을 지원하고 사회적 자립향상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